

가정문해활동,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및
영아-어머니 간 공동주의와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간의 관계

The Home Literacy Activities, Mothers' Verbal Behavior,
and Toddler-mother Joint Attention :
The Relationship to the Language-cognitive Development of Toddlers

김명순(Myoung Soon Kim)¹⁾

한찬희(Chan Hee Han)²⁾

유지영(Jee Young You)³⁾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me literacy activities, mothers' verbal behavior, toddler-mother joint attention and the language-cognitive development of toddlers. The language-cognitive development of toddlers was assessed by means of the Mental Scale from the Korean Bayley Scale of Infant Development II (K-BSID-II). The home literacy activities were measured by means of the questionnaire used by You (2009), which was partly modified from Shapiro (1979). Lee & Kim (2004)'s categories was used to observe the mothers' verbal behaviors during shared book reading; joint attention episodes were observed by classification categories for engagement condition (Bakeman & Adamson, 1984). One of the more important conclusions of this study is our suggestion that mothers' verbal behaviors and the toddler-mother coordinated joint atten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anguage-cognitive development of toddlers as it takes place within low-income families.

Key Words : 가정문해환경(the home literacy activity),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mother's verbal behavior),

¹⁾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²⁾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³⁾ 한양여자대학 유아교육과 강사

Corresponding Author : Chan Hee Han,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hch811@naver.com

영아-어머니 간 공동주의(toddler-mother joint attention),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the language-cognitive development of toddlers), 저소득 가정(low-income families).

I. 서 론

출생 후 첫 2~3년에 이르는 영아기는 인생의 그 어느 시기보다 발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민감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 생의 초기 경험이 이후 전반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Park, Seo, & Bornstein, 2005). 특히 만 2세경의 영아기는 정신적 표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적 능력이 급격하게 성장함과 동시에 표현 어휘가 빠르게 늘어나는 특징적인 시기로, 국내외에서 24~36개월 시기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다.

한편,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한 연계를 가지며 발달한다는 입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Vygotsky는 가장 유연한 심리적 도구로서 언어를 논하면서 언어가 고등정신과정의 발달을 주도한다고 보았고, 인지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영유아기라고 주장하였다(Berk & Winsler, 1995). 이와 같이 언어와 인지 발달은 동시에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발달하는 영역이라는 전제하에 대표적인 영아 대상 발달검사인 Bayley 영유아발달검사(BSID-II) 역시 인지척도(Mental Development Index) 내에서 이 두 영역의 발달을 포괄하여 측정하고 있다.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많은 학자들이 부모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영아와 어머니의 초기 상호작용 경험이 이후의 학습과 발달에 원천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Hart &

Risley, 1992). 최적의 어머니-자녀 간 상호작용은 아동의 발달적 유능성을 예측하는 창으로써 자녀의 긍정적 인지발달 및 언어발달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NICH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0). 이와 관련하여 Hart와 Risley(1995), Walker, Greenwood, Hart와 Carta(1994) 등은 초기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언어자극의 양이 초등학교 아동의 지능과 언어학업 성취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보고하였다. Senechal과 Cornell(1993), Wells(1985), Whitehurst 등(1988) 등의 연구들에서도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전략과 아동의 언어 능력간의 관계에 대해 밝힌 바 있다. Kim, Kim & Lee(2012)도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이 영아의 지속적 언어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영아의 언어적 시도에 대한 부모 및 주변 성인들의 반응성이 후기 언어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양육자-영아 간 상호작용의 질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Kim & Lee, 2007; Paavola, Kunnari & Moilanen, 2005; Tamis-LeMonda, Bornstein & Baumwell, 2001). 즉, 이러한 결과에서는 영아의 의사소통 시도에 대한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영아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들의 전언어적·언어적 의사소통 시도에 대해 어머니가 응시해주고 이를 해석하여 발성이나 몸짓 또는 단어로 반응해주는 협력적 과정-이 영아의 의사소통과 후기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어머니와 자녀간 쌍방향의 상호작용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인과 영아 간 시

선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공동주의(joint attention)이다. Bakeman과 Adamson(1984)은 영아가 흥미 있는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양육자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함께 바라보게 되는데 이를 공동주의라고 하며 이러한 능력은 영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적 과제라고 하였다. 이러한 공동주의는 영아의 사회적, 인지적 성숙을 반영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과 관련을 가지며 주의가 공유된 상황에서의 영아와 성인 간 상호작용은 자녀로 하여금 최적의 학습기회를 제공한다(Mundy & Gomes, 1998; Saxon & Reilly, 1999)는 면에서 인지 발달에 있어서도 중요성을 지닌다. 즉, 공동주의는 타인의 특정대상에 대한 주의를 이해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하며 주의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영아기의 발달을 복합적이면서도 핵심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Kim & Lee, 2009).

한편, 영아-어머니 간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가정 내의 전반적 환경 역시 영아가 태어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문해활동인 책읽기는 생애초기부터 영아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선행 연구들은 가정문해환경이 풍부하고 어린 시절부터 책읽기를 일찍 시작하였으며, 부모와 많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한 경우 이후의 언어적 기술과 문해능력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Debarysche, 1993; Kaassow, 2006; Ninio & Bruner, 1978; Sonnenschein & Munsterman, 2002; Wells, 1985). 영아의 언어발달과 관련되는 실제적인 가정 문해 경험으로는 책읽기, 책을 읽을 때 어머니와 영아가 나누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양과 유형, 책읽기 이외의 다양한 읽기 경험과 다양한 쓰기 경험, TV보기, 놀이 활동, 부모가 읽기·쓰기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 영아가 적극적으로 문해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

을 들 수 있다(Kim, 1998). 이러한 가정 문해 경험에 있어서 문해 활동을 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읽고 쓰는 모델의 역할을 자주 접하게 하며 따라서 자녀는 읽는 것을 중요하며 즐거운 일이라는 인상을 갖게 된다(Park & Kim, 2010).

지금까지 살펴본 변인들 외에, 아동의 언어·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의 소득수준을 들 수 있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가정환경이 다를 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양육에 대한 신념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다르다고 보고 되고 있다. Duncan과 Brooks-Gunn (2000)은 가정의 소득수준이 어머니의 교육수준, 연령, 직업 등의 다른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자녀의 언어발달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성인기까지 그 영향이 지속된다고 하였다. 최근 발표된 Kim 등(2010)의 연구에서도 역시 저소득 가정의 부모양육 태도 및 신념은 일반 가정에 비해 낮았고 놀이 상호작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중류층 가정의 아동에 비해 어휘력, 인쇄물 개념, 읽기 이해력 등 언어 능력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는 결과가 다수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바 있다(Berger, Paxson, & Waldfogel, 2009; Kim & Park, 2008; Lee & Kim, 2006; Shin & Kim, 2008; Storch & Whitehurst, 2002). 저소득층 영유아의 생애 초기 5년간의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인 발달적 결핍은 나이가 들수록 일반 아동과 점점 그 차이가 벌어진다(Ramey & Ramey, 1998)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이러한 계층 간 차이는 심각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소득의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봉착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반면, 부모의 빈곤으로 인해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위기에 처해 있는 저소득 영아에 대한 연구

는 특히 미흡하다. We Start와 같이 저소득 가정의 영아를 위한 예방적 놀이 중재프로그램(Kim, Hwang, & Ahn, 2011)의 개발과 적용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나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자료와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 및 저소득 가정의 만 2세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 수준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고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환경적 변인들, 즉 가정문해활동,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및 영아-어머니 간 공동주의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저소득 가정 영유아를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은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가정문해활동,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및 영아-어머니 간 공동주의는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가정문해활동,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및 영아-어머니 간 공동주의와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 간의 관계는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

는 24~36개월 영아(평균연령 31.3개월; 범위 24~36개월) 82명(남아 41명, 여아 41명)과 그들의 어머니 82명이었다.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으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저소득 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에 의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였으며, 차상위 이상의 계층을 일반 가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 대상 어머니의 인구학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 측정 도구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한국 베일리 영유아발달검사 II(Korean Bayley Scale of Infant Development : Second Edition : K-BSID-II)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미국에서는 모든 가정을 대표하는(성, 인종, 교육, 지역에 따라 층화표집) 1,700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표준화되었으며 BSID, DDST, DAS, McCarthy Scale 등과의 공인 타당도가 증명되었다. 국내에서는 Park과 Cho(2004)가 전국 2,200여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 검사를 표준화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인지 발달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베일리 정신발달척도(MDI) 점수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측정하는 하위 능력들에는 기억, 문제 해결, 수개념, 일반화 능력, 분류 능력, 이해언어와 표현 언어, 사회적 기술 등이 포함되고 있다. 영아들의 상대적인 발달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개별 영아들의 원점수를 통해 산출된 발달지수(범위 55~145 점)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mothers (N = 82)

	Monthly-income (won)		Mother's age		Mother's occupation		Mother's education	
Low -income (N=34)	Below 1,000,000	7	20~below25	1	Manual laborer	2	Below high school graduate	2
	1,000,000~ below 1500,000	12	25~below30	6	Sales & service	1	High school graduate	23
	1,500,000~ below 2,000,000	12	30~below35	20	Administrative job	1	Vocational college graduate	8
	2,000,000~ below 2,500,000	3	35~below40	7	Housewife	30	University graduate	1
Middle & upper -income (N=48)	3,000,000~ below 3,500,000	6	25~below30	4	Office job	5	University graduate	39
	3,500,000~ below 4,000,000	13	30~below35	28	Administrative job	7		
	4,000,000~ below 4,500,000	15	35~below40	13	Housewife	33	Graduate school or above	9
	4,500,000~ below 5,000,000	9	40~below45	3				
	over 5,000,000	5			Others	3		

2) 가정문해활동

가정의 문해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You(2009)가 사용한 가정문해활동 부모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자녀에게 처음 책을 읽어준 시기,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아용 책의 권 수, 자녀와 함께 책을 읽는 빈도, 자녀와 책을 한 번 읽을 때의 시간, 지난 6개월 동안 해당 자녀를 위해 구입하거나 빌린 책의 권수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별 점수 범위는 1, 3, 5 문항은 1~5점이고 2, 4 문항은 1~4점이며, 가능한 총점 범위는 5~2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에서의 책읽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책읽기 활동에 대한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6 이었다.

3)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분석 기준

영아-어머니 간 그림책 읽기 활동과 퍼즐놀이

활동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Lee와 Kim(2004)이 수정 보완한 Whitehurst 등(1998)의 척도와 Senechal, Cornell과 Broda(1995)의 척도를 본 연구자들이 예비조사를 통해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범주는 크게 주의환기, 설명하기, 추론 및 예측하기, 질문하기, 피드백, 요구 및 지시하기의 6가지로 분류되었으며, 어머니와 영아의 책읽기 및 놀이를 촬영한 2분 30초(책읽기 상호작용 1분 30초, 퍼즐 놀이 1분)의 동영상을 3초 단위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 내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이 6개 분류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석하여 체크하였다. 이러한 기준 및 분석 내용에 대해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닌 25~40개월 영아 5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상호작용을 녹화한 후 전사하여 빈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자 2인 간에 Cohen Kappa 계수를 산출한 결과 .93의 관찰자 간 신뢰도를 얻었다.

4) 영아-어머니 간 공동주의 분석기준

영아와 어머니의 공동주의를 살펴보기 위하여 Kim과 Lee(2009)의 연구에 사용된 Bakeman와 Adamson(1984)의 범주를 기초로 연구자들이 행동 분석기준을 작성하고,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된 공동주의 분석체계는 영아와 성인이 번갈아 주의하며 상호작용하는 협응적 공동주의, 영아가 보는 대상을 성인이 바라보는 지지적 공동주의, 영아가 성인의 행동에 개입하지 않고 관찰하는 방관, 영아가 아무데도 주의하지 않는 무관여의 4개 하위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주의의 각 범주와 기술적 내용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영아 어머니 간 공동주의를 분석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영아의 책읽기 및 놀이를 촬영한 비디오를 보면서 녹화된 2분 30초(책읽기 상호작용 1분 30초, 퍼즐 놀이 1분)를 3초 단위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간이 4개의 주의상태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석하여 체크하였다. 구간의 수는 모두 50개였다. 각각의 주의 상태는 상호배타적으로, 어떠한 주의상태도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주의 상태의 분석에 대한 관찰자간 신뢰도는 연구 대상의 20%인 18쌍에 대해 본 연구자 2인이 일치도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88이었

다. 관찰자간 신뢰도에서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두 관찰자가 분석 범주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한 후 합의한 후 본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t 검증과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의 차이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영아의 전반적 발달 수준을 살펴본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저소득 가정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 백분위 점수는 49.70($SD = 19.08$), 일반 가정 영아의 점수는 70.25($SD = 11.40$)로, 두 집단 간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 = -6.62, p < .001$).

<Table 2> Descriptions of toddler-mother joint attention

Categories	Descriptions of toddler-mother joint attention
Coordinated joint attention	The toddler is actively involved with coordinates his or her attention to both the mother and the object that mother is involved with
Supported joint attention	The toddler and his or her mother are actively involved in the same object, but the baby evidences little awareness of the other's involvement or even awareness
Onlooking	The toddler is observing another's activity, often quite intently, but is not taking part in that activity
Unengaged	The toddler appears uninvolved with any specific person, object, or activity, although he or she might be scanning the environment as though looking for something to do

<Table 3> T-test of toddlers' language-cognitive development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N = 82)

Variable	SES	Low-income (n = 34)	Middle & upper-income (n = 48)	t-value
		M(SD)	M(SD)	
Language/Cognitive Score		49.70(19.08)	70.25(11.40)	-6.62***

***p < .001.

2.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가정문해활동,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및 영아-어머니 간 공동주의의 차이

니의 언어적 행동 및 영아-어머니 간 공동주의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가정문해활동, 어머니

먼저 가정문해활동의 총점을 산출하여 t 검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t = -5.92, p <

<Table 4> T-test of home literacy activities, mothers' verbal behavior, toddler-mother joint attention and toddlers' language-cognitive development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N = 82)

Variables	SES	Low-income (n = 34)	Middle & upper-income (n = 48)	t-value	
		M(SD)	M(SD)		
Home literacy activity		14.26(4.26)	18.43(2.01)	-5.92***	
Mothers' verbal behavior	Calling attention	4.53(3.11)	1.96(1.11)	5.28***	
	Explaining	Labelling	5.85(3.31)	1.60(1.77)	7.50***
		Describing	10.35(3.68)	10.29(2.62)	.09
		Previous experience	.91(1.54)	1.42(1.03)	-1.78*
		Sub-total	17.21(5.83)	13.31(3.90)	3.54*
		Guessing & Predicting	1.18(1.17)	1.65(1.48)	-1.54*
		Questioning	9.21(5.90)	9.25(5.28)	-.04
	Feedback	Praising	2.38(1.81)	2.50(2.00)	-.28
		Confirming	4.82(3.17)	5.64(2.61)	-1.29
		Imitating	1.24(2.29)	2.13(2.16)	-1.92
Correcting		1.32(1.46)	.64(1.08)	2.57*	
Expanding		.68(0.91)	1.06(1.67)	-1.22**	
	Sub-total	10.44(6.09)	11.97(5.13)	-1.25	
	Demanding & Directing	3.44(2.80)	3.21(2.56)	.39	
Toddler-mother joint attention	Coordinated joint attention	29.35(5.84)	31.63(4.77)	-1.93*	
	Supported joint attention	12.64(4.98)	15.38(3.54)	-2.90**	
	Onlooking	2.35(1.94)	1.95(1.71)	1.27	
	Unengaged	5.53(3.30)	1.54(2.11)	6.67**	

*p < .05. **p < .01. ***p < .001.

.001)를 보여 일반 가정의 경우 일상적인 문해활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의 경우, 6가지 분류 중 ‘질문하기’, ‘피드백’, ‘요구 및 지시하기’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행동 유형인 ‘주의환기’($t = 5.28, p < .001$), ‘설명하기’($t = 3.54, p < .05$), ‘추론 및 예측하기’($t = -1.54, p < .05$)에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영아와의 놀이 및 책읽기 상황에서 저소득 가정의 어머니는 일반 가정의 어머니에 비해 주의환기를 더 많이 시도하고 설명을 많이 하는 반면, 추론이나 예측과 관련된 언어적 상호작용은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범주에 따라 살펴보면 ‘설명하기’ 중에서도 ‘묘사’는 집단 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명명하기’($t = 7.50, p < .001$)는 저소득 가정의 어머니가 더 많이 사용한 반면 ‘사건경험’($t = -1.78, p < .05$)과 관련된 언어적 행동은 일반 가정의 어머니가 더 많이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피드백’의 경우, 전체 점수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 범주 중 ‘확장하기’($t = -1.22, p < .01$)의

언어 유형은 일반 가정 어머니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아-어머니 간 공동주의를 살펴보면 ‘협응적 공동주의’($t = -1.93, p < .05$)와 ‘지지적 공동주의’($t = -2.90, p < .01$)에서 모두 일반 가정의 영아-어머니 간 점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무관여’($t = 6.67, p < .01$)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 저소득 가정의 영아-어머니 간에서 더 많이 관찰된 반면, ‘방관’은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가정문해활동,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및 영아-어머니 간 공동주의와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간의 관계

가정문해활동,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및 영아-어머니 간 공동주의와 언어·인지 발달 간의 관계를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가정문해활동의 총점은 두 유형의 가정에서 모두 영아의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oddlers' language-cognitive development and home literacy activities, mothers' verbal behavior, and toddler-mother joint attention according to economic status ($N = 82$)

Variables	Language · cognitive development	Low-income ($n = 34$)	Middle & upper-income ($n = 48$)
	Home literacy activity	.23	.02
Mothers' verbal behavior	Calling attention	-.07	-.16
	Explaining (Previous experience)	.41*	.01
	Guessing & Predicting	.44*	.03
	Questioning	.14	-.17
	Feedback (Correcting)	-.23	-.10
	Demanding & Directing	-.23	-.06
Toddler-mother joint attention	Coordinated joint attention	.60**	.23
	Supported joint attention	.25	.03
	Onlooking	-.17	-.17
	Unengaged	-.47**	-.27

* $p < .05$ ** $p < .01$

인지·언어 발달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과 영아-어머니 간 공동주의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경우에만 일부 하위 범주들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즉, 저소득 가정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중 ‘설명하기’의 하위 범주인 ‘사전경험’($r = .41, p < .05$)과 ‘추론 및 예측하기’($r = .44, p < .05$)는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과 긍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가 사전경험과 관련된 설명을 많이 하고 추론이나 예측을 많이 시도할수록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 수준이 높았다. 다음으로, 저소득 가정의 영아-어머니 간 공동주의를 살펴보면 ‘지지적 공동주의’는 영아의 인지·언어 발달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협응적 공동주의’($r = .60, p < .01$)는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 협응적 공동주의를 많이 할수록 영아의 인지·언어 발달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관여’($r = -.47, p < .01$)는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저소득 가정의 영아-어머니 책읽기 상황에서 영아가 관심을 두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수록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으로 연구 대상을 구분하여 두 유형의 가정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알아보고,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과 관련된 가정환경적 변인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반 가정 영아가 저소득 가정 영아에 비해 언어·인지 발달

의 수준이 높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국내 만 2~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언어 능력을 살펴본 Kim 등(2010)의 연구, 가정의 소득수준이 자녀의 언어발달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Duncan과 Brooks-Gunn(2000)의 연구, 저소득층 유아가 낮은 어휘력(Walker et al., 1994)과 적은 의사소통 행동(O'Connell & Farran, 1982)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저소득 유아와 일반 유아의 여러 발달능력의 차이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진다는 Ramey와 Ramey(1998)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영아가 열악한 환경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성장 과정에서 점차 그 차이가 크게 벌어져 학령기 이후에는 학업성취와 사회적인 적응에서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 간의 차이가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살펴본다면 본 연구에서 드러난 영아기 인지·언어 발달의 소득 집단 간 차이는 저소득 가정의 영아기 자녀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가정문해활동,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및 영아-어머니 간 공동주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의 가정문해활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소득 수준이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유아에게 풍부한 문해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여러 선행 연구(McCormick & Mason, 1986; Shin & Kim, 2006; Tomopoulos et al., 2006; You, 200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Gray(1995)에 의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모는 자녀와의 책읽기 등 문해 활동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와 일치한다. 가정의 문해환경은 유아의 언어발달의 촉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Jung, 2004; Morrow,

1983),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부족은 결국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소득 가정의 전반적인 문해 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저소득 가정의 어머니는 일반 가정 어머니에 비해 명명 위주의 설명을 많이 하는 반면, 추론 및 예측하거나 확장하기의 언어적 행동은 적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 가정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책읽기나 놀이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상호작용을 이끌어 가는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언어적 행동보다는 책의 글과 그림을 그대로 설명하고 명명하는 줄거리 중심의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 아동을 연구한 Heath(1995), Lee & Kim(2006), You(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Ninio (1980)는 어머니가 사물에 대한 명칭을 주로 말하는 행동은 자녀로 하여금 능동적인 명명을 이끌어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피드백의 경우 두 계층 어머니들 간에 특히 확장하기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 가정의 어머니들이 영아의 표현을 더 풍부하게 해주거나 명확히 해주기보다는 영아의 행동을 확인, 칭찬하거나 교정하는 역할에 그쳐 영아의 수준을 높이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영아-어머니 간 공동주의를 살펴본 결과, 협응적 공동주의와 지지적 공동주의는 저소득 가정에 비해 일반 가정의 영아-어머니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무관여의 경우 반대의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 가정 어머니가 영아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 사회·정서적 성장을 위한 촉진 행동 및 인지적 성장을 위한 촉진 행동에 있어 일반 가정의 어머니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

다고 보고한 Park과 Kim (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어머니들이 확장적 사고를 유도하는 상호작용을 일반 가정의 어머니들보다 적게 한다는 Ninio(1980)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셋째, 가정문해활동,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및 영아-어머니 간 공동주의와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정문해활동은 저소득 및 일반 가정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이나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과 영아-어머니 간 공동주의는 저소득 가정에 국한하여 하위 범주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에 있어 가정의 소득수준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일반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나 상호작용의 유형은 아동의 발달과 상대적으로 적은 관련성을 보이는 반면, 저소득 가정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언어 자극(본 연구에서는 ‘사전 경험’과 관련된 설명, ‘추론 및 예측’)과 영아의 흥미에 함께 반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협응적 공동주의가 영아의 발달과 상당 부분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정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에서는 사전경험을 활용한 설명하기, 추론 및 예측하기의 두 가지 하위 범주가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Pellegrini, Brody와 Sigel(1985), You(2009)의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사고의 수준을 높이는 비계설정을 적절하게 해줄 때 영아의 언어와 인지가 발달됨을 보여준다. Dickinson, DeTemple, Hischler와 Smith(1992)에 의하면 저소득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확장적 언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명명 위주의 설명과 교정이 주를 이루는 언어적

행동이 주를 이룬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논의는 본 연구에서 저소득 가정의 어머니들에게 이러한 언어적 행동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저소득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 점수가 낮게 측정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 가정의 영아-어머니 간 공동주의의 경우, 두 가지 하위 범주 중에서도 협응적 공동주의에서만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영아가 타인과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주의 기울이고 타인에 대해 분명하게 행동을 취하는 협응적 공동주의 상태가 언어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Lee, Lee & Lee, 2007)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협응적 공동주의를 많이 할수록 영아의 언어 발달이 긍정적이었음을 보고한 Kim과 Lee(2009), Dunham과 Dunham(1992), Mundy와 Gomes(1998)의 연구들 역시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성인의 지지적 행동 특성을 보여주는 지지적 공동주의가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는 양육자의 지지적 공동주의가 지지적 학습상황을 마련하여 영아의 발달을 돕는다는 선행연구 결과(Bruner, 1982)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는 지지적 공동주의가 협응적 공동주의의 이행을 돕는다는 선행연구들(Jeong & Kwak, 2005; Bakeman & Adamson, 1984)이나 지지적 공동주의가 협응적 공동주의 바로 직전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여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Kim과 Lee(2009)의 연구결과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저소득 가정에서 나타난 어머니 관련 변인들과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 간의 유의한 관계가 일반 가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최근 이루어진 Kim 등(2010)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 가정과 저소득 가정 간에 영유아를 위한 언어 관련 놀이감을 갖추고 있는 정도에 있어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부모양육 태도 및 신념에 있어 일반 가정에 비해 저소득 가정의 부모가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영아기 자녀를 둔 일반 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이나 공동주의와 더불어 놀이감과 같은 물리적 환경, 부모의 양육신념과 태도가 복합적으로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에 관여되는 반면 저소득 가정의 경우 부모의 낮은 양육신념과 태도, 다소 열악한 물적 환경 내에서 부모의 직접적 상호작용의 정도가 더 영아의 발달과 더 긴밀하게 연관될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과 영아-어머니 간 공동주의는 저소득 가정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에 있어 특히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저소득 가정 내에서도 어머니가 영아에게 제공하는 언어적 자극이나 상호작용의 특성에 따라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때, 영아의 인지·언어 발달을 위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이들을 위한 중재(intervention) 프로그램의 적용과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Kim, 2009; Mellhuish, 2009). 특히 만 2세경의 영아기는 정신적 표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적 능력이 급격하게 성장함과 동시에 차례말기 및 표현 어휘가 빠르게 늘어나는 중요한 시기(Kim et al., 2012)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중재 프로그램은 영아 초기부터 이른 시기에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저소득 가정 영아-어머니의 경우 그

수가 많지 않고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저소득층 전반에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영아-어머니 간 공동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1회의 비디오 촬영을 실시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반복적인 관찰을 시행하여 보다 포괄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및 영아-어머니 간 공동주의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그림책 읽기와 퍼즐 놀이라는 구조적 상황을 제시하였으나 추후에는 일상생활의 장면이나 자유놀이 상호작용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영아와 어머니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영아의 언어·인지 발달을 돕기 위한 어머니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상호작용 특성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Bakeman, R., & Adamson, L. (1984). Coordinating attention to people and objects in mother-infant and peer-infant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55*, 1278-1289.
- Berger, L. M., Paxson, C., & Waldfogel, J. (2009). Income and child develop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1*, 978-989.
- Berk, L. E., & Winsler, A. (1995). *Scaffolding children's learning : Vygotsk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Washington, DC :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Young Children.
- Dearing, E., McCartney, K., & Taylor, B. A. (2001). Change in family income-to-needs matters more for children with less. *Child Development, 72*(6), 1779-1793.
- Debarysche, B. D. (1993). Joint picture-book reading correlates of early oral language skill. *Journal of Child Language, 20*, 455-461.
- Dickinson, D., De Temple, J., Hirschler, J., & Smith, M. (1992). Book reading with preschoolers : Coconstruction of text at home and at 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7*(3), 232-346.
- Duncan, G. J., & Brooks-Gunn, J. (2000). Family poverty, welfare reform,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1), 188-196.
- Dunham, P., & Dunham, F. (1992). Lexical development during middle infancy : A mutually driven infant-caregiver process. *Development Psychology, 28*(3), 414-420.
- Gray, L. S. (1995). Taking from books by asking questions.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0*, 23-28.
- Hart, B., & Risley, T. R. (1992). American parenting of language-learning children : Persisting differences in family-child interactions observed in natural home environ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8*(6), 1096-1105.
- Hart, B., & Risley, T. R. (1995).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everyday experience of young American children*. Baltimore, MD : Brooks.
- Heath, S. B. (1983). *Ways with words : Language, life, and work in communities and classrooms*.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 Jung, J. Y. (2004). *The relationships between home literacy environment and children's print concep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 Y. K., & Kwak, K. J. (2005). Development of coordinated joint attention in infancy : Looking through attentional state and pointing behavior in mother-infant interactio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8*(1), 137-154.
- Kaassow, D. Z. (2006). Parent-child shared book reading quality versus quantity of reading interactions between parents and young children. *Talaris Research Institute, 1*(1), 1-9.
- Kim, M. S. (2009). 貧困家庭の乳児のためのWE Start家庭訪問プログラムの適用と効果. 日本保育學會, 第 62回大會, 日本 : 千葉市 千葉大學.
- Kim, M. S., Kim, E. H., & Lee, Y. J. (2012). One year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turn-taking and vocabulary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50*(2), 75-84.
- Kim, M. S., Kim, G. S., Son, S. H., Yoo, J. E., Lee, M. J., Lee, Y. S., Cho, H. R., & Han, C. H. (2010). The effects of toys related literacy and parent-child relational factors on language abilities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31*(4), 61-74.
- Kim, M. S., & Park, C. H. (2008). The effectiveness of reading intervention on at-risk children in first through third grad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9*(5), 301-319.
- Kim, M. S., & Lee, K. H. (2009). Relationships between toddler-teacher joint attention and toddlers' vocabularie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30*(5), 155-165.
- Kim, M. S., & Lee, Y. J.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responsiveness and infant's commun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3), 97-107.
- Kim, M. S., Hwang, H. J., & Ahn, H. J. (2012). *Early intervention program of home visiting for at-risk infants*. Seoul, Korea : Daum-saedae.
- Kim, T. S. (1998). The relationships between home literacy experiences and literacy development levels at age 4-5. *Child Education, 7*(2), 1-16.
- Lee, K. Y. & Kim, M. S. (2006). Mother-child interactions in picture-book reading and children's language ability among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ARAHE, 13*(1), 39-49.
- Lee, M. H., & Kim, M. S. (2004). The effect of dialogic picture-book reading teacher training program for toddler.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5*(2), 41-57.
- Lee, H. R., Lee, K. O., & Lee, Y. J. (2007). Relationships between joint attention and language development in infancy.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8*(5), 297-307.
- Mellhuish, E. (2009). *Sure Start in England and results of evaluation*, WeStart international conference source book : World's Start program; An innovative approach to child

- poverty, pp. 121-189.
- Morrow, L. M. (1983). Home and school correlates of early interest in literatur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6*(4), 221-230.
- Mundy, P., & Gomes, A. (1998). Individual differences in joint attention skill development in second year.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1*, 469-482.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9). Child care and mother-child interaction in the first three years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35*, 1399-1413.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0). The relation of child care to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 960-980.
- Ninio, A. (1980). Picture-book reading in mother-infant dyads belonging to two subgroup in Israel. *Child Development, 51*, 587-590.
- Ninio, A., & Bruner, J. S. (1978). The achievement and antecedents of labelling. *Journal of Child Language, 5*, 1-15.
- O'Connell, J. C., & Farran, D. C. (1982). Effects of day care experience on the use of intentional communicative behaviors in a sample of socio-economically depresse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22-29.
- Park, S. Y., Soe, S. J., & Bornstein, M. (2005). Mother-infant interaction styles associated with infant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6*(5), 15-30.
- Park, S. J., & Kim, M. S.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me literacy environment and mother's teaching behavior, and 18-24-month-old infant's vocabulary ability according to SES of familie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31*(4), 15-27.
- Park, H. W., & Cho, B. H. (2004). *Korean 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II interpretation manual*. Seoul : Kidspop.
- Paavola, L. Kunnari, S., & Moilanen, I. (2005). Maternal responsiveness and infant intentional communication : Implications for the early communitive and linguistic development.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1*(6), 727-735.
- Pellegrini, A. D., Brody, G. H., & Sigel, I. E. (1985). The role of home literacy environment in the developmental language ability in preschool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9*, 427-435.
- Ramey, C. T., & Ramey, S. L. (1998). Early intervention and early experience. *American Psychologist, 53*(2), 109-120.
- Saxon, T. F., & Reilly, J. T. (1999). Joint attention and toddler characteristics : Race, sex and socioeconomic statu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49*, 59-69.
- Senechal, M., & Cornell, E. H. (1993). Vocabulary acquisition through shared reading experiences and receptive vocabulary, *Journal of Child Language, 24*, 123-138.
- Senechal, M., & LeFevre, J. (2001). Storybook reading and parent teaching : Links to language and literacy development.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92*(2), 39-52.
- Shin, H. Y., & Kim, M. S. (2006). Parents'

- attitudes towards emergent literacy, home literacy activity and children's vocabulary, concepts about in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9(4), 199-212.
- Sonnenschein, S., & Munsterman, K. (2002). The influence of home based reading interaction on 5-year-olds' reading motivations and early literacy develop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7, 318-337.
- Storch, S. A., & Whitehurst, G. J. (2002). Oral language and code-related precursors to reading :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structural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 934-947.
- Tamis-LeMonda, C. S., Bornstein, M. H., & Baumwell, L. (2001). Maternal responsiveness and children's achievement of language milestones. *Child Development*, 72, 748-767.
- Walker, D., Greenwood, C., Hart, B., & Carta, J. (1994). Prediction of school outcomes based on early language production and socio-economic factors. *Child Development*, 65, 606-621.
- Wells, G. (1985). Preschool literacy-related activities and success in school. In D. R. Olson, N. Torrance, & A. Hilyard (Eds.), *Literacy, language and learning;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reading and writing*(pp. 229-255).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hitehurst, G. J., Falco, F. L., Lonigan, C. J., Fischel, J. E., Debarysche, B. D., Valze-Menchaca, M. C., & Caufield, M. (1988). Accelerating language development through picture book rea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52-559.
- You, J. Y. (2009). *Relation of home literacy activity and mothers' verbal behavior to infants' vocabulary development in low-income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12년 12월 31일 투고, 2012년 5월 15일 수정
2012년 5월 31일 채택